


| | | | |
|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 | 인도(뉴델리) 통상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| 작성팀 | 마케팅지원팀 |
| | | 담당자 | 하승창 소장 이영훈 과장 |
| | | 일시 | 2022.07.25 |

CEPA Insight

- 인도 경제, 올해 IER 2위 달성 및 경제성장률이 8.2%로 전망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빠른 회복 입증
-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, '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'

< 2022년 6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| 구분 | 수출액 |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| 수입액 |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| 무역수지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전국 | 1,429,552천불 | 22.6% | 858,683천불 | 46.4% | 570,869천불 |
| 충남 | 162,690천불 | 3.6% | 140,857천불 | 401.2% | 21,833천불 |

※ 출처 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■ 인도, 올해 국가경제력회복지수 2위 달성 및 8.2% 경제성장률 전망

•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도 경제,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 중

- 인도 '국가경제력회복지수(IER*)'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위** 기록, 인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(출처: PHDCCI(편집:하리아나·델리 상공회의소))

* IER(International Economic Resilience)은 경제성장률, 상품수출규모 성장률,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를 참고하여 PHDCCI가 자체 생산하는 지수

** 2022년 기준 IER 순위: ①독일·캐나다, ②인도, ③중국, ④이탈리아, ⑤일본·영국, ⑥미국 순

- 인도의 가파른 IER 순위 상승* 주요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인 것으로 분석되며, 인도의 튼튼한 펀더멘털로 향후 다른 주요 경제국 대비 성장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 (출처: REPORTODISHA, 2022.07.24.)

* 인도 IER 순위 변화: 2019년 6위 → 2020년 4위 → 2021년 3위 → 2022년 2위

- 또한, 글로벌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(IMF)에서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8.2%로 전망 (출처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22.05.17. / 한국무역신문, 2022.07.18.)

※ 2022년 경제성장률 IMF 전망: 중국 4.4%, 인도네시아 5.4%, 베트남 6.0%, 태국 3.3%

■ 관세청, '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', 인도·베트남으로 확대 노력

- 내년 중 해당 시스템을 인도·베트남에 운영 논의 중(출처: 연합뉴스, 2022.07.14)
 - '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(EODES)*'은 FT 특혜관세혜택의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(C/O; Country of Origin)를 협정국과 전자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, 인도네시아, 중국 등과 운영 중
 - * 수입국 통관 과정에서 별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배송 지연, 분실에 따른 위험이 줄고 절차 간소화로 물류비용 절감 가능(출처: 일간국제신문, 2021.05.26.)
 -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이행법령 및 지침 등 관련 정보를 관세사 등에 제공할 예정
 - ※ 향후 FTA 활용정책 실효성을 높임으로써,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■ 인도,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하며 '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'

-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지속 증가,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
 -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빨대, 일회용 칼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산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간 1,4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
(출처: 글로벌이코노믹스, 2022.07.07)
 - ※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체계적인 쓰레기 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< 인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도시 TOP 10 > 재활용 없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음
(출처: 인도 환경부(CPCB))
- 플라스틱 사용 금지 발표 이후 관련 산업의 일시적인 제한연기 요구도 일출
 -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성명을 통하여 빨대, 칼, 귀걸이, 포장필름 등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, 플라스틱 제품의 불법 사용, 판매, 유통 점검을 위하여 통제 센터를 두기로 결정
 -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닐봉지를 제한 품목에서 제외하였으나, 관련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(출처: 글로벌이코노믹스, 2022.07.07.)



■ 인도 정부의 정책 변화 확인 및 맞춤형 현지 진출방안 모색 필요

• 엄격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관련 기업들의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필요

-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제한으로 플라스틱 대체품 시장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면서, 다양한 관련 상품이 향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
- 이에 따라, 한국 기업도 인도 內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고, 관련된 국내 기업의 인도 친환경 시장 진출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※ 단, 가격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획기적 신제품 개발이 필요

• 특히,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도내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적극 추천

-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정부 의지와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나, 이에 대한 인도 內 생산성은 현저히 낮음(출처: 한국무역협회, 2019.10.15.)
- 이에 따라, 친환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도내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 끝.